

美 ‘내리고’ 日 ‘올리고’… 한은, 금리 결정 ‘진퇴양난’

美 인하 기조 속 방향성 흔들
日 금리 정상화로 환율 불안↑
엇갈린 통화정책에 한은 고민
국내 정책 판단 제약요인 누적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 뒤 이달 세 번째 인하를 두고 막판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은 17년 만의 금리 정상화수순을 다시 밟을 채비를 하고 있다. ‘美 인하·日 인상’이라는 엇갈린 통화정책 신호가 겹치면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 중인 한국은행이 어느 쪽으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의 금리결정 회의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과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리를 잇따라 0.25%포인트(p)씩 낮춰 현재 연 3.75~4.00% 범위로 운용 중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위치에 따르면 오는 12월 9~1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한 번 더 0.25%p 인하해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낮출 가능성이 80% 안팎까지 높아진 상태다.

최근 노동시장 둔화와 일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인하”에 무게를 두지만, 일각에선 “이번 인하 이후 상당 기간 동결을 이어가는 ‘매파적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반대로 일본은행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일 나고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정책금리가 0.75%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후 경로를 더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0.5%인 정책금리를 이달 18~19일 회의에서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던진 셈이다.

우에다 총재의 발언 직후 일본 2년·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의 최고

수준 근처까지 뛰었다.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0.4%가량 강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일본 단기금리에 연동된 스왑 지표를 바탕으로 12월 인상 가능성을 70%대 중후반까지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채권·주식 시장을 흔들 전례까지 겹치면서 일본발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미·일 통화지도가 이렇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움직임이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5월 0.25%p 인하 이후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로 ‘장기 관망’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만약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면 한·미 금리차는 1.25%p(상

단 기준)로 줄어든다. 표면적으로는 자본 유출 압력이 탈해될 수 있지만, 일본이 인상에 나서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엔·달러 삼각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연준을 따라 추가 인하로 가기도, 일본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되레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구조가 된다.

향후 진로를 둘러싼 금융위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은 향후 3개월 금리 방향을 두고 ‘동결’과 ‘인하’ 의견이 3대 3으로 나뉘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은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성장·물가·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시행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사, 세 부담·비용증가·소비둔화 ‘3중고’

교육세 인상에 추가 세 부담 1000억
고환율로 물가·금리·소비 모두 악화

영업수익 1조원이 넘는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1% 교육세율을 부과하는 국회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카드업계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소비 둔화, 조달 비용 증가까지 3중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내년도 업계 수익성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상향하는 세제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대부분의 카드사가 영업수익의 1%를 교육세로 납부하게 됐다.

앞서 금융권은 교육세율을 상향하는 세제안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카드업계(8개 전업 카드사 기준)의 경우 이번 교육세율세제개편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 세금 지출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는 당국에 영업수익보다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변경해 달라 요청한 바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고객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영업수익 만큼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또 0.5%, 1%로 비율 자체 숫자는 작아보여도 세로 나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여전채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의 조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전채 AA+ 3년물 기준 금리는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 후반대였던 여전채 금리가 3%를 넘어서더니 약 3.5%에 달하는 구간까지 올라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여전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미리 감지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4차례 연속 동결한 바 있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까지 겹치며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14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은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 실제 국세청이 발표한 신용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10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8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직전 달인 9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1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 부담과 더불어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변동이 많은 만큼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채선 기자 wotjs4187@



지난 3일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운데)가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현장 직원들과 함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동절기 현장 릴레이 안전점검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
이한우 대표이사 직접 현장방문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와 시흥시 ‘힐스테이트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대비 릴레이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른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및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12월 첫 주를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최고 경영자(CEO)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교육, 현수막 설치, 노사 합동점검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365 안전패트를 팀’을 운영하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조치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및 협력사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비씨카드,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 진행

회원사 발급 카드 전반에 적용
가구·가전·패션 등 할인 제공

비씨카드가 연말연시를 맞아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다.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에서 직접 태그 후 비씨 개인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비씨카드 회원사 발급 카드 전반에 적용된다. 회원사에는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 광주은행, 비씨바로카드 등이



포함된다. 먼저 이달 말까지이케이온·오프라인 매장과오늘의집 온라인몰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 이소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300원 할인해 준다. 1일 1회로 연말까지 총 3회 제공되며 최대 9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자제품 관련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하이마트, LG베스트샵, 오프라인 삼성스토어,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100만원 이상 물품 결제 시 1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G마켓·옥션 1만원 이상 결제 시 1% 할인, 올리브영 5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도 준비됐다. 15일부터는 무신사, 29CM, W컨셉 등 패션 플랫폼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을 지급한다.

여행 부문에서는 항공권 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만원을, 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서는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할인한다. 티웨이항공은 이와 별도로 12월 한 달간 비씨카드 고객에게 전 노선 1만원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안채선 기자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평창 오픈

국민은행 시니어 고객 전문 컨설팅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시니어 고객의 상속 및 증여 자산관리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평창’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평창’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1층에 신설되어 시니어 맞춤형 ‘토탈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

티’는 서울 도심에 자리한 실버타운으로 식사와 고급 스낵, 간호사 상주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번 자문센터는 세무 전문가가 상주해 시니어 고객에게 맞춤형 상속·증여 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연금·신탁·법률·부동산·가업승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순환 배치되어 예약 상담을 통한 전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기존 자문센터와의 차별점이다.

/안상미기자